



알아서 재해예방하면 점검·감독 면제

노동부는 올해부터 300인 이상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재해예방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각종 안전보건점검 및 감독을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지방노동청 대구북부지청(지청장 김정호)은 관내 300인 이상 제조사업장 17개사를 대상으로 노사자율재해예방프로그램 도입 시행에 따른 안내 실시 및 이행을 권장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노사의 자율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노·사자율재해예방프로그램은 △안전보건조직체계 △작업장 위험성 평가 및 대응 △근로자 교육 등 사업장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노사가 협의하여 정한 안전보건종합계획서이며, 참여할 사업장은 재해예방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6개월마다 안전보건 개선활동 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대규모 사업장의 노사자율·협력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통한 산업재해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건설업에 도입되어 올해는 제조업으로 확대·시행하게 되었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재해예방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참여사업장은 각종 안전보건 점검·감독 면제 뿐만 아니라,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 포상시 우선 추천할 계획이다.

그러나 형식적인 시행 및 안전조치 소홀 등으로 인해 사망사고 등 재해가 발생하거나 진정, 고소 등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되는 경우 점검 면제 혜택은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즉시 감독을 받게 된다.

노동부, 모든 사무실 공기 질 높이도록 규칙개정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무실내 공기의 질이 한층 쾌적해 진다.

노동부는 사무실내 공기오염에 의한 건강장해

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사무실에 공기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사업주는 모든 사무실에 대해 ▲미생물로 인한 사무실내 공기오염의 방지 조치를 하고 ▲실외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기 질을 측정·평가 하여야 하는 등 사무실내 공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그 동안에는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정화설비를 갖춘 사무실에만 한정하여 사무실 공기를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관련 규정개정으로 모든 사무실에 확대하게 되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 5일부터 이와는 별도로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석면 등 9종의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기준 및 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업무시간 동안 150 $\mu\text{g}/\text{m}^3$ 이하, 일산화탄소는 10 ppm 이하, 이산화탄소는 1,000 ppm 이하, 석면은 0.01 개/cc 이하 등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유해물질별 측정방법·주기 등 관리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이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은 건축자재의 화학물질 사용이나 환기부족 등에 의해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새집 증후군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사무실 근로자들이 보다 쾌적한 사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사무직 근로자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00억 이상 건설현장 소장 간담회 개최

대구지방노동청 대구북부지청(지청장 김정호)에서는 대형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노사간 자율·협력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유도하여 산업재



해율을 감소하고자 관내 100억 이상 7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07.2.2~3.6까지 개최하였다.

최근 들어 북부지청 관내는 경기불황 등으로 소규모 단위 건설현장은 감소추세이나 노후된 아파트 재건축, 낙후지역 재개발 등 대규모 아파트 공사 현장이 급증·밀집되고 있으나, 건설현장의 필요한 노동력은 3D업종 취업 기피현상으로 국내 젊은 숙련공보다는 고령자, 중국동포 등 외국인 미숙련 근로자들이 대거 투입되고 있음에 따라 산업재해가 다발할 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철저한 사전예방이 필요한 실정이며, 종전 일방적인 강의를 통해 정부정책 주지 방식의 간담회를 지향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재해예방에 대한 노사간 관심제고와 함께 공사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하기 위해 건설현장별(관내 현장이 4개 이상인 4개 사업체)과 지역별 (3개지역)로 병행하여 개최함으로써 대구지역의 산업재해예방 및 감소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 '석면제로' 현장 감독강화

2009년부터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수입 및 사용이 금지되고, 석면 해체·제거 업체 등록제 도입을 위한 법개정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석면관리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책내용에 따르면 석면함유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다. 적정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전문 업체의 『등록제』도입과 함께 『전문분석기관 지정제』를 도입, 분석인력과 장비 등을 관리하고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공단연구원에서 이들 기관에 대해 정도관리를 실시하여 분석능력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건축물 철거 전에 석면함유 여부를 사전에 조

사할 수 있는 『석면조사 전문가』도 육성된다.

2009년부터 모든 석면 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 구체적인 금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 1월부터 수입이 금지된 브레이크 라이닝, 슬레이트 등 석면함유 시멘트제품 및 마찰제품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와 협의, 통관단계부터 철저히 차단할 예정이다.

사전허가 없이 석면해체·제거하는 것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된다. 철거현장을 불시에 점검,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석면의 비산정도에 따라 작업유형을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알맞은 작업 메뉴얼을 만들어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위험상황신고전화(1588-3088)를 통해 무허가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신고를 상시 접수할 예정이다. 석면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 지방노동청(지청)장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장은 “최근 지하철 역사내 천장재에서 석면이 검출되고, 건축물 철거 현장에서의 석면 노출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번에 『석면관리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학계, 노사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지난달 발족한 『석면관리 T/F』를 통해 지하철·공공시설에 대한 석면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근로자보호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석면은 광택성의 섬유모양 광물질로서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안쏘필라이트석면 등 6종이 있으며, 내

화성, 단열성, 절연성 등이 뛰어나 그동안 건축자재, 자동차부품, 섬유제품 등에 주로 이용되었다.

석면은 인체에 노출되는 경우 약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 중피종, 석면폐 등 모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국제암연구학회(IARC)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안전 한국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지진제도 마련

한국안전주식회사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지진피해 경감을 위해 그동안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진방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진재해대책법』 제정을 추진하여 지난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다.

정부에서는 이미 1995년 고베지진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 내진설계 개념을 도입하여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내진기준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지진방재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5년 3월 20일 일본 후쿠오카 북서쪽 해역 지진발생 이후, 정부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지진대책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2005년 5월 30일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진방재종합개선기획단을 출범시켜 작년 4월 11일 범정부적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고 소관 부처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중앙본부장(소방방재청)은 국가차원의 내진성능목표 설정 및 내진등급 분류 등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하여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내진설계기준에 대한 기본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진 및 지진해일의 효율적 관측을 위하여 지진관측망은 기상청에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지진해일 관측망은 기상청과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주요 공공시설물 관리주체별로 지진거동 특성을 관측하도록 지진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자체적으로 즉각 대응 조치 등을 강구토록하고, 기상청 등 관련기관들간에 지진관측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진관측자료를 공유토록 하였다.

지진해일 대책으로는 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지역 침수예상 지역이 표기된 지진해일 위험지도 제작 추진을 의무화하고, 지진해일경보시스템을 보완토록 하여 신속한 주민대피에 활용토록 하는 한편, 중앙 및 지역본부장은 지진방재 교육 및 훈련·홍보를 위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필요한 행동요령 등 교육·홍보 △지진관련 종사자 지진방재 전문교육 추진 △지진현상 체험 및 지진발생시 행동요령 등의 교육·훈련을 위한 지진체험교육장을 설치토록 규정하였다.

지진방재 업무의 기본자료인 지진위험관련 지도 제작·활용을 의무화하고, 소방방재청장은 기존 국가지진위험도와 지진구역 재평가 및 보완과 함께 활성단층 조사·연구 및 지도 작성을 추진토록 규정하였다.

내진설계와 내진보강 등 내진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진설계기준 제정이전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처별로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민간건축물의 소유자가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 및 재해관련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지진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지진발생시 지역별 진도를 자동 계산하여 자동표출하고, 지역별 인명피해를 예측하여 한 발 앞서 장비 및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을 구축토록하고, 지진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지진피해조사단,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토록 규정하였다.

앞으로 법 제정 추진일정은 우선 금년 2월 개원 예정인 임시국회에 상정하여 가능한 금년 6월까지 입법 완료하고 하반기내에 시행령·시행규칙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법제화된 지진방재시책들이 관계부처별로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우리는 안전 어린이』 안전교재 및 현장교육 영상을 보급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재난과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고 선진 안전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지난해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재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 보급을 필두로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처음으로 미취학아동용 『우리는 안전 어린이』 안전교재 20만부를 발간하여 전국의 유치원 8,275개소, 보육시설 28,367개소, 시·도 및 지역교육청 198개소, 소방관서 181개소, 도서관 등에 보급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안전 어린이』 안전교재 발간배경은 14세 이하의 어린이 총 사망자 1,894명으로, 이중 전체의 47.2%인 895명이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어 어린이 안전사고 통계분석을 근간으로 소방방재청에서는 (사)한국생활안전연합 및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일선 유치원(보육) 교사 등 관련부처 및 전문가와 협의하여 미취학아동용 안전교재를 발간하게 되었다.

『우리는 안전 어린이』 안전교재 내용구성은 유아 스스로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내용 주제별로 『화재 및 재난안전』과 『생활 및 교통안전』으로 구분하여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문자해독 능력이 없는 유아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림을 통해 내용을 전달하지만, 교사와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학습활동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위험을 강조하고, 행동을 금지시키는 태도와 용어를 지양하여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안전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이끌어내는 형태로 구성하고, 무엇보다도 연령에 맞는 교육내용을 선정, 자칫 딱딱해지기 쉬운 내용을 쉽게 아동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또한, 『우리는 안전 어린이』 안전교재의 교육효과를 높이고자 교재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0분 내외로 아이들에게 친근감 있는 인형극

형태로 『뜨거운 연기를 피해요』, 『조심조심! 물놀이』, 『보행안전! 갑자기 뛰어들이지 않아요』 등 11편의 현장교육 영상물을 촬영·제작하여 일선 유치원, 보육시설, 소방관서 및 시·도 교육청에 보급하고, 또한,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동용 연기 및 대피체험 시뮬레이션』, 『우리집 안전체험 고무자석판』, 입체모형도, 『119신고체험 전화기 세트』 및 화재·교통·화상·물놀이 등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대응을 소재로 어린이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안전동요 15곡이 수록된 『소방동요 CD집』 등을 제작·보급하였고, 그리고, 시각적 효과를 위해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 및 소방방재활동 유형별 교육용 전시판넬도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앞으로 발간된 안전교육 교재활용 및 홍보계획은 미취학아동들 뿐만 아니라 교사 및 학부모 등 어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자료실, 일반행정기관 등에 비치하여 선진 안전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며, 한편, 전국 소방학교에 연수과정을 신설하여 일선 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들의 교육연수를 통하여 다양한 교육기법 전달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병행하고, 또한,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소방관서, 각 지역 교육청 및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관련 사이트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 및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